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6월 14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누가복음 14장 25-36절

설교제목 :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구원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내가 은혜로 부르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구원의 과정이 성화를 이루는 과정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성화는 이 땅을 사는 성도의 목적과 같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마28:19) 제자삼는다는 것은 곧 제자가 되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이 명령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를 따르는 허다한 무리와 내게 오는 자와 구별하고 계십니다.(눅14:25-26) 오늘날 무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들을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피만 요구할 뿐,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 헌신자, 모든 목회자나 선교사가 다 제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제자로 부르받아 온전한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훈련을 받아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훈련받는 것입니다. 제자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눅9:23) **‘따르다’**는 말썬은 **‘같은 방식으로 간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의 삶의 방식, 예수가 생각하는 방식, 예수가 원하는 방식을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가 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눅14:26) ‘미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로 ‘미세오’는 본래 ‘미워하다’의 뜻 이외에 다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보다 **‘상대적으로 덜 좋아한다’**는 뜻입니다.(마10:37) 이 말썬의 진의는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심지어는 식구들을 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더욱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 제일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 부인으로 다르게 표현하셨습니다.(눅9:23) **‘자기를 부인하고’**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자기의 행복, 영광, 만족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위해 삽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 삶의 체계를 버리고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눅14:27)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망대와 전쟁의 교훈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망대와 전쟁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과 댓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눅14:28-32)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에 따른 댓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따르는데 비용과 댓가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용지불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가 지불해야할 비용지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삶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고난입니다. 주님의 따르는 제자는 반드시 고

난이 필연적입니다.(롬8:17)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롬8:36)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전부를 걸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참고 막 10:29-30, 롬8:18) 달라스 윌라드가 지은 잊혀진 제자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도를 버리면 우리는 사라질 줄 모르는 평안, 사랑이 관통하는 삶,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에 비추어 매사를 바라보는 믿음,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견고히 서 있는 소망, 옳은 일을 행하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을 잃는다. 한마디로 제자도를 버리는 대가로 당신은 예수께서 주려 오셨다고 하신 바로 그 풍성한 삶(요10:10)을 잃는 것이다. 십자가 모양인 그리스도의 멍에는 그분과 함께 그 안에 살면서 영혼에 쉼을 주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자들에게는 어디까지나 해방과 능력의 도구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자입니다.(눅14:33) 자기의 모든 소유란 내가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마6:24)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소유를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전적인 위탁’이라고 합니다. ‘전적위탁이란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적위탁은 예수님만 주인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절대로 주인삼지 않는 것입니다. 전적위탁은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주인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을 주인삼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눅 14:34-35) 맛을 잃으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은 제자가 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 **※.말씀 생각해 보기**

- 1)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의 특징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들을 누군가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4)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5) ‘전적의탁’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당신에게는 어떤 이유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